

## 卷頭辭

서울大學校 金桂淑  
附屬圖書館長

1964年을 도리켜보면 第三共和國의 새로운 出發과 함께 多事多難한 가운데서도 서울大學校의 圖書館事業은 中央圖書館을 비롯하여各大學圖書館의 整理와 擴充에 있어서 飛躍的前進은 없었으나 꾸준하고도 堅實하게 基礎의이며 全體的인 計劃과 整備를 通하여 가까운 앞날의 巨步的인 發展의 基盤을 構築하고 있습니다.

藏書數에 있어서는 지난 8月末現在로서 全 서울大學校의 登錄된 圖書만 하여도 81萬卷을 넘었으며 이 巨大한 研究資料를 全體的으로 圓滑하고도 有効하게 活用토록 하기위하여 「서울大學校 綜合目錄」事業이라고 하는 거창한 事業도 지난 1學期에서부터 그 準備에着手하여 現在는 그 目錄作成事業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서울大學校가 綜合大學으로서 그 完全한 機能을 發揮할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 優先的인 基盤의 하나로서의 圖書館의 全體的計劃은始作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綜合的事業을 完遂하기 위하여서는 于先 圖書館報를 發行함으로써 圓滑한 콤뮤니케이션의 使命을 다하려고 하였으며 이번에 그 제 2號가 나오게된 것입니다. 어려운 財政的인 隘路에도 不拘하고 1964年的 서울大學校 圖書館事業의 總決算을 널리 紹介할 수 있게 된 것을 서울大學校 全圖書館職員과 함께 그것을 支援하여 주신 教授들에게 感謝를 드려마지아니 합니다.

특히 中央圖書館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マイクロ필름撮影機」와 함께 필름複寫機의 設置입니다. 이 機械設置로 因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貴重한 文獻의 廣汎한 利用은勿論이요 어떠한 文獻的 研究資料를 莫論하고 對外的으로도 奉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最新의 「콤뮤니케이션 メディア」의 施設로서 이 貧弱한 學界에 널리 貢獻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圖書와 施設을 어떻게 가장 有効하고 價値있게 活用할 것인가 하는 다음 問題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같은 커다란 問題를 앞에 두고 1965年에는 보다더 커다란 成果가 있기를 바라면서 第二號의 發刊을 祝賀하는 바입니다.